24일 Market Index
코스피 5006.03 (+297.49)
코스닥 665.88 (+30.43)
금리(국고채 3년) 3.640 (+0.017)
환율(원·달러) 1342.4 (-3.5)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25일 수요일

삼전닉스 메모리 공급확대 '청신호'… 美 수출통제 '변수'

젠슨 황, 11일 만에 복귀

안보위험 없다 판단, 트럼프가 지시
엔비디아 반도체 공급망 확충 계획에
삼전닉스, HBM4 공급확대 등 추진
中공장 미국산 수출통제 적용 유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복귀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공급 불안은 줄었지만 중국 공장 투자에는 미국의 수출통제가 걸림돌로 남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중국 생산시설에 필요한 장비 반입 허가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24일 이사회가 황 CEO의 경영 복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CEO가 사임한 지 11일 만이다. 이사회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황 CEO의 복귀가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사회 설득에 직접 나서는 등 황 CEO의 복귀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자 중심의 경영체제를 회복한 엔비디아는 기존에 추진해 온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과 공급망 확충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회사는 반도체 공급망 확충을 위해 장기 공급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지난 17일 발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반도체 공급 및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계약상 약정액은 3900억달러(약 524조원)로 직전 분기보다 1110억달러(약 149조원) 증가했다.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장기 메모리 공급계약 확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협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황 CEO의 복귀로 엔비디아의 기존 조달 계획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양사도 차세대 제품 공급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4 공급 확대와 후속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공급망 확보는 첨단 패키지 기판 분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삼성전기와 기존 공급계약을 수정해 생산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대만 킨서스와는 엔비디아 전용 기판 생산능력을 기존보다 3.5배 이상 확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황 CEO 복귀로 삼성전기와의 기판 공급 협력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세종·부산 생산거점에 대한 추가 투자 지원이 확정될 경우 협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엔비디아와의 공급 협력에 대한 기대와 달리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생산시설 투자는 미국의 수출통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황 CEO의 복귀를 지지하면서도 대중국 반도체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중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연산능력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한 데 이어 싱가포르 메가스피드 등 7개 기업을 수출제한 명단에 올렸다.

이들 조치는 AI 반도체의 중국 우회 공급을 겨냥한 것으로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 규제와는 별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는 기존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가 적용된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장비 반입 허가를 연간 승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양사의 증설과 공정 전환에도 허가 일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로이터통신은 지난 3일 SK하이닉스의 중국 다롄 공장 증설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 수출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며 내년도 장비 반입 역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 매물 석달 새 2만건 급증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1932건으로, 지난 8월3일 6만409건보다 2만1523건(35.6%)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지역 아파트 모습.최근엔 중랑·노원 등에서 매물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10월 말 대비 이달 24일 매물 증가율은 중랑구가 11.0%로 가장 높았고, 노원구(8.0%), 동작구(7.9%), 성북구(7.6%)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단기간에 매물이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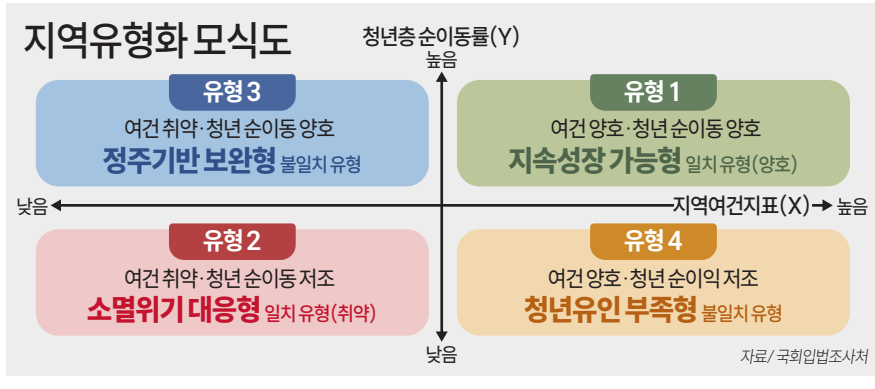
청년 유출·고분양가… 지방 미분양 는다

청년 수도권 거주비중 56% 달해
경북 3.3㎡당 분양가 시세의 2.3배
"시세-분양가 격차 좁히지 못하면
내년 미분양주택 해소 요원할 것"

지방 주택시장이 청년 유출과 고분양가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와 주택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시세를 크게 웃돌고 있어서다. 수요 기반이 약한 데다 가격 부담까지 겹치면서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지역간 불평등 분석지표 개발 및 실증분석 연구'에 따르면 전국 청년인구(19~34세) 중 수도권 거주 비중은 2000년 47.9%에서 지난해 56.0%로 8.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비중은 52.1%에서 44.0%로 낮아졌다.

수요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새 아파트의 가격 문턱도 높아졌다. 부동산리서치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201만원으로 평균 시세 2173만원보다 28만원 높았다.



지난 2024년 15년 만에 나타난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값 역전 현상이 올해까지 이어졌다.

지역별 격차는 더 컸다. 서울·경기·세종은 분양가와 시세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경북과 전남·광주, 경남, 강원 등에서는 분양가가 시세의 두 배에 가까웠다. 경북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642만원으로 평균 시세(710만원)의 2.3배에 달했다. 전남·광주도 분양가가 1934만원으로 시세(902만원)의 2.1배로 조사됐다.

주변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에 새 아파트를 사야 하는 만큼 신축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미분양 해소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는 지역 내 갈아타기 수요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집을 팔고 옮기려는 실수요자가 추가로 마련해야 할 자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외부 수요가 부족한 지방에서 지역 내 갈아타기마저 위축돼 신규 분양시장 회복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분양가가 내려갈 여지도 크지 않다.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는 2021~2026년 매년 3~7%씩 올라 누적 상승률이 33%를 넘었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

젠슨 황 컴백에 코스피 5000 탈환

글로벌 증시 '황의 마법'

코스피 6.32% 반등 5006.03 마감
삼성 6.70%, 하이닉스 6.73% ↑
엔비디아 주가 31% 오른 9500억 弗

"젠슨·젠슨·젠슨!"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3일(현지시간) 직원 수백 명의 환호 속에 복귀했다.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 대신 짙은 남색 재킷 차림이었다. 그는 "두 번째 기회를 줘서 고맙다. 두 번째엔 더 나은 CEO가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불륜 스캔들로 물러난 지 11일 만의 복귀다.

주식시장에서는 '황의 마법'이 펼쳐졌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6.32% 반등한 5006.03에 마감했다. 장중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일시 효력 정지)도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되며, 향후 5분간 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조치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6.70% 오른 18만94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6.73% 오른 115만8000원에 거래됐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 증시 참여자들도 환호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3.91% 급등했고, 대만 가권 지수(+8.99%) 등도 반등에 성공했다. 황 CEO의 복귀 소식에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1.81%), 영국 FTSE 100(1.30%), 독일 DAX(2.15%) 등도 상승 마감했다.

황 CEO의 복귀로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 주가는 23일(현지시간) 31% 폭등한 165.05달러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하루 새 약 9500억달러(약 1280조원) 불었다. 마이크론(19%), 샌디스크(10.7%), 인텔(16.3%) 등 주요 반도체주도 줄줄이 급등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덩달아 14% 급등했다.

엔비디아가 끈 뉴욕증시도 급반등했다. 나스닥지수는 6.51% 오른 2만4089.56, S&P 500지수는 4.73% 오른 7237.17로 마감했다. 두 지수 모두 작년 4월 이후 하루 상승률이 가장 컸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합참 "북 아닌 러 군용기 수대 동해 KADIZ 진입…영공침범 없어"
▲한병도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으로 확대…고등교육법 개정안 즉시 처리" /사진 뉴시스
▲조정식 의장, 다카이치 日 총리와 회담…"첨단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오세훈 "민심 전달하려 했는데…李대통령 의사봉 3번 내리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정국 속 출국…싱가포르·일본 순방길
▲경찰, 김병기 '강선우 1억 묵인' 의혹 등 불구속 송치…수사 1년2개월만